

최근 주요 고용동향과 고용전망

남재량*

2014년은 우수한 고용성과와 함께 시작되었다. 1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70만 명 이상 증가하였고, 2월에는 무려 83만 명 이상 늘었으며, 3월에도 65만 명 가까이 증가하였다. 작년 1사분기 실적이 25만 명 남짓한 정도에 불과하였던 데에 비하면 2014년 1사분기는 그야말로 고용의 봄이 된 셈이다. 올해 1사분기의 이러한 고용성과는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겹쳐서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작년 1사분기의 저조한 성과에 힘입은 기저효과와 설 특수 등 일시적인 요인들이 취업자 증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사분기 들어 고용증가폭은 46만 명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그러나 상반기의 우수한 고용성과를 가져온 요인들 가운데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들도 여럿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짚어보고 하반기 고용을 전망해보도록 하자.

먼저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고용 관련 특징들을 살펴보자. 이러한 특징들은 쉽사리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고용을 전망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용직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외환위기를 제외한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상용직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지속적인 고학력화는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는 상용직 형태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켰을 것이고 기업들도 더 이상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위주로 한 이윤 창출이 어려워짐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어쨌든 상용직의 지속적인 증가는 올해 상반기 동안에도 계속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용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베이비 부머들이 50대에 진입하면서 50세 이상 연령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고용증가도 지속되고 있다. 50세 이상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모습은 이미 자리잡은 지 오래이며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비교적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들도 있다. 주로 작년 하반기 들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jmam@kdi.re.kr).

면서부터 관찰되기 시작한 것으로 여성, 중소기업,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성장이 다. 그 이전의 취업자 증가는 남성, 대기업, 그리고 제조업이 주도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들어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성-중소기업-서비스업 위주의 취업자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위주의 고용성장은 고용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성 위주의 취업자 증가는 서비스업,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돌봄서비스의 증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거나 더 나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 역시 고용전망을 밝게 한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제조업과 대기업의 고용성과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 당초 고용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에서 10만 명 이상의 고용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대규모 사업체도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들 두 요인에 의한 고용증가는 올해 상반기, 특히 1사분기의 이례적인 고용성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영업 부문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이 곳은 이미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대략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수가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감소 규모는 약 20만 명에 이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201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40만 명가량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자영업 부문에서, 등락이 있었지만, 큰 폭의 취업자 감소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기회복세의 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들과 금융업 부문의 고용불안 등과 같은 요인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올해 취업자 수는 45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나, 그렇다고 50만 명을 넘기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더 나은 성과도 가능할 것이다. **KL**